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6. 2.(수) / 총 10매(본문7, 참고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 과장 김유진, 사무관 오한영·김용수·서지훈 주무관 안슬아·김건우·허성현 • ☎ (044) 201-3769, 4098, 4094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 친환경 새 단장·에너지 절감 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새 단장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韓('20.12)·EU('19.12)·中('20.9)·日('20.10), 美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 공약('20.7) 이행 중

○ 정부도 '한국판 뉴딜' 발표('20.7),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 등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그 중 건물부문은 지난 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4.4% 감축과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 중에 있다.
- 이러한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에 맞춰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건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추진 목표 및 전략

-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친환경 새 단장 사업 확대(기축)**와 **에너지 절감 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먼저 기존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새 단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 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도입·정착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 	
추진 전략	친환경 새 단장	에너지 절감 건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9933cc; color: white;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기축</div> <div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부문의 친환경 새 단장 선도 ② 민간 대상 친환경 새 단장 지원 확대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9933cc; color: white;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신축</div> <div style="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공공부문 성능 향상 및 시범도시 발굴 ④ 민간 ZEB 활성화 기반 마련 </div> </div>

《 친환경 새 단장 - 기존건축물 대상 》

① 먼저,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 2개년 간('20년 추경, '21년) 총 2천여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대상 친환경 새 단장 추진에 국비 4,552억원(2,276×2개년) 투입

- 이와 더불어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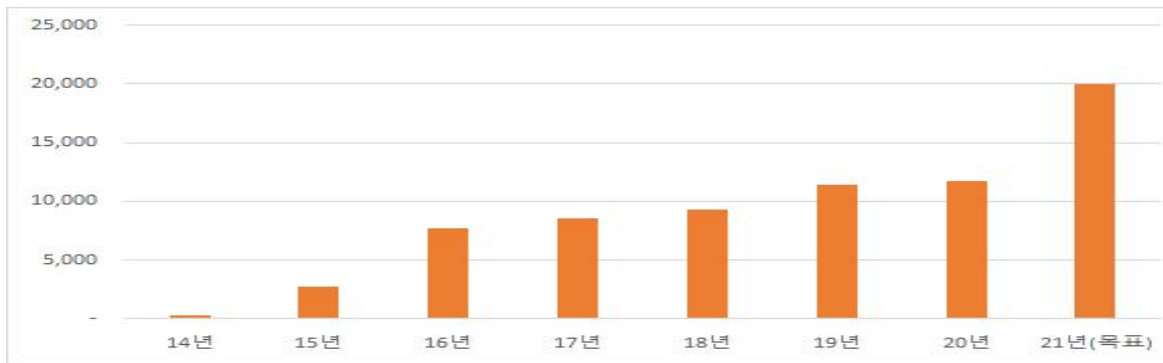
② 공공부문 친환경 새 단장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친환경 새 단장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 2024년까지는 친환경 새 단장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새 단장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민간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새 단장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간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 연도별 민간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이자지원사업 달성 추이 》



-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④ 친환경 새 단장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친환경 새 단장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끈다.

- 젊은 인재들에게 친환경 새 단장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사업자에 대한 홍보 등 기존 친환경 새 단장 사업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시장수용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친환경 새 단장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친환경 새 단장 센터 신규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친환경 새 단장

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 절감 건축물 - 신규 건축물 대상 》

⑤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ZEB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19.6월 ZEB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후 소규모 공공건축물(500m² 이상)은 '한국판 뉴딜'에 따라 당초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의무화하기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한번 더 강화하여 '25년부터 ZEB 4등급, '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 세부 적용대상은 면적·용도·용적률 고려하여 확정(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25년 의무화)

⑥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ZEB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북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는 기존 시범사업 수준을 뛰어넘어 ZEB 특화지구 선도 모델로써 지구 단위 최초 에너지 절감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⑦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ZEB 의무화로 인한 인증 수요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하여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하는 등 인증 제도의 미비점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⑧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여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 수요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저비용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원-스톱 인증통합시스템을 통해 인증 편의를 제고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한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하여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물 별로 맞춤형 저비용 ZEB 설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화 효과 및 비용 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언택트 문화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ZEB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ZEB 확산 및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의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새 단장과 에너지 절감 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새 단장과 에너지 절감 건축물 정책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용수 사무관(친환경 새 단장, ☎ 044-201-3769), 오한영
 사무관(에너지 절감 건축물, ☎ 044-201-40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21년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예상 사업비) 약 3천억원 추정 (국비 약 2,130억원 교부 예정)
 -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7:3 (서울 및 공공기관은 5:5)
- (예상 사업대상) 총 913동 (어린이집 391동, 보건소 475동, 의료시설 47동)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동수	92	23	5	20	20	7	5	8	118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중앙
동수	72	36	62	135	103	120	38	21	28

□ 사업추진 현황

- 사전조사 신청 (2.22~3.31, 지자체→LH) 결과 총 913동 접수, 신청 건축물 대상 에너지컨설팅 및 사업계획안 제공(~4.30)하여 지자체 신청 지원
- 본사업공모 (3.31) 실시하였으며, 본사업신청 (4.20~5.10) 받은 후 국비교부(~5월) 및 사업설계·공사발주(6월~)하여 연내 사업완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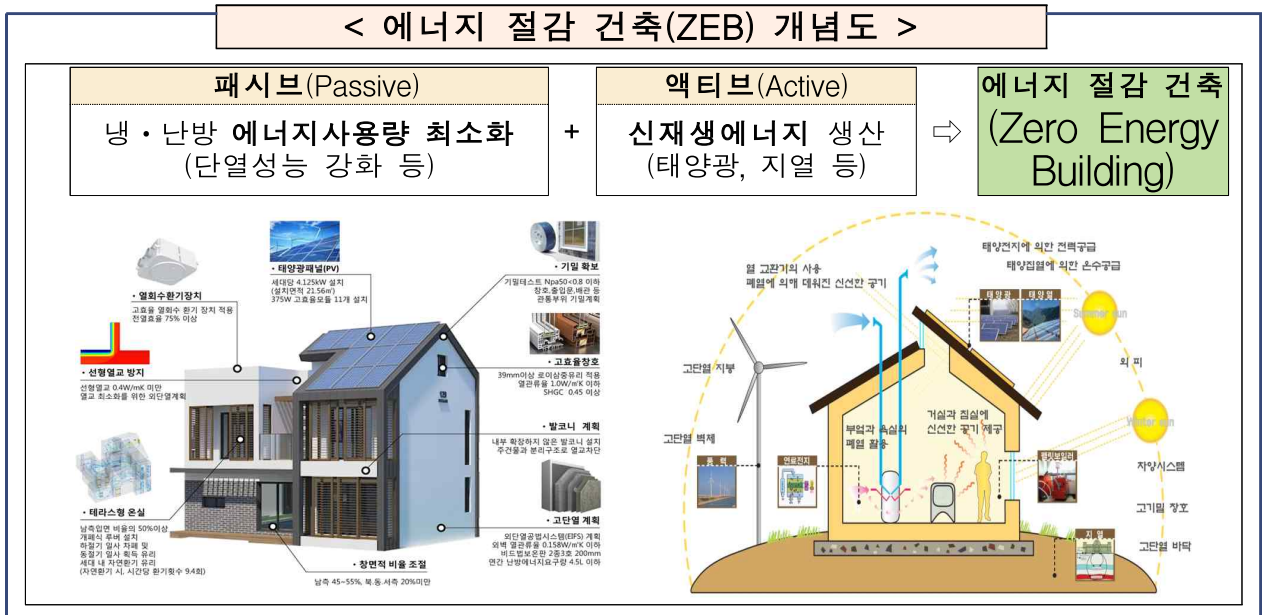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사업 절차



2021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현황
·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사업 전 단계)	[Progress Bar]				방역단계 고려, 영상설명회 추진(2.9~)
· 잠정 사업대상 사전조사 (전국 약1천여 동)	[Progress Bar]				조사업체 선정, 조사대상 접수(2.22~)
· 사업 공고, 공모접수·선정	[Progress Bar]				공고(3.31), 사업신청·선정(4월~5월)
· 사업비 교부 (LH → 시도 → 시군구)	[Progress Bar]				사업비 교부(~5월말)
· 지자체 사업추진 (설계~공사준공)	[Progress Bar]				설계·시공 과정 지원(LH, 국토관리원)
· 친환경 새 단장 지역거점 플랫폼 운영	[Progress Bar]				플랫폼 세부협약체결(2.16)

참고2 ZEB(에너지 절감 건축) 설명자료

□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인센티브) ZEB는 일반 건축물 대비 추가공사비(약 5~15%)가 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건축주 부담 완화 추진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15%~11%)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 자금 및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BEMS 보조금 지원 등
- 기타(산업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설비 투자비 저리 지원 등

□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1⁺⁺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1 ⁺⁺ 등급 이상(최고1 ⁺⁺⁺ ~ 최저7등급)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참고3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현황

□ '21.1분기까지 총 827건(예비 792건, 본 35건) 인증완료

○ 연도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4분기	계
예비인증	10	26	35	493	228	792
본인증	-	4	6	14	11	35
합 계	10	30	41	507	239	827

○ 등급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예비인증	17	14	42	145	574	792
본인증	4	4	5	3	19	35
합 계	21	18	47	148	593	827

○ 공공/민간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예비인증	775	17	792
본인증	30	5	35
합 계	805	22	827

○ 연면적별

구 분	1천㎡미만	1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계
예비인증	18	354	299	121	792
본인증	8	11	9	7	35
합 계	26	365	308	128	827